



Strategy & Economy

투자전략

Economist/Strategist 전지원

02) 3787-5231 jiwon@kiwoom.com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경기 하방위험 증가

2/4분기 경기부양책 강화될 듯



2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비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가동을 역시 금융위기 이후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경기의 하방위험이 증가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2월 수치에는 설 연휴라는 계절적인 특성이 존재하기에 경기 침체 폭 확대를 단정짓기에는 이른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재고/출하 비율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2/4분기 중 경기부양책 강화 및 금리 인하가 단행될 전망입니다.

>>> 광공업 생산 2개월 연속 감소

2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에서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1.2%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설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광공업에서 감소하여 1.9% 감소.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8%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9.3% 감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7.8%로 전월에 비해 0.9%pt 하락.

>>> 경기 하방위험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정짓기에는 이른

2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 이러한 부진은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을 나타냄. 제조업 가동률 역시 77.8%로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2009년 2월 79.0% 이후 가장 낮은 수준. 하지만 2월 수치에는 설 연휴라는 계절적 특성이 존재하고 있어, 경기침체 가속화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며 3월 수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2월 경기동행지수가 반등했으며,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은 지난 해 12월 113.7%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지속(1월: 116%, 2월: 114.1%)하고 있기 때문.

>>> 2/4분기 경기부양책 강화될 듯

정부의 2013년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은 경기 하방위험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 이로 인해 2/4분기 중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실시될 예정. 추경은 4월 8일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사업 선정 및 집행시차를 감안하면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 하지만 추경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집행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단행될 전망.

현재 국내 경제부문에서는 설비투자과 건설수주 부문이 특히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정부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해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추가적인 부진 폭을 제한해 줄 것으로 기대.

산업활동 주요지표

			12년				13년				
			연간	3/4분기	4/4분기	2월	12월	1월	2월	1~2월	
생산	전산업	전월(기)비	-	0.0	0.9	1.1	1.0	-1.0	1.2	-	
		동월(기)비	1.0	0.7	0.1	9.6	-0.2	3.1	-1.9	0.6	
	광공업	전월(기)비	-	-2.2	2.9	1.1	1.6	-1.2	-0.8	-	
		동월(기)비	0.8	-1.0	-0.1	15.3	0.4	7.6	-9.3	-1.1	
	제조업	·생산	전월(기)비	-	-2.3	2.9	1.1	1.5	-0.9	-1.2	-
			동월(기)비	0.8	-1.1	-0.2	15.7	-0.5	8.0	-9.8	-1.1
		·출하	-내수	0.7	0.7	-1.2	13.8	-1.5	5.5	-9.0	-1.9
			-수출	-1.1	-1.9	-2.2	11.8	-3.1	5.0	-9.5	-2.3
			·재고	3.0	0.9	0.2	16.3	0.7	5.8	-8.4	-1.5
		·평균가동률	78.1	76.2	77.8	80.4	78.4	78.7	77.8	78.3	
		·생산능력	2.2	1.9	1.3	3.3	1.3	1.1	1.0	1.0	
	서비스업	전월(기)비	-	0.9	0.0	1.0	0.5	-1.2	1.7	-	
		동월(기)비	1.6	1.5	0.8	6.2	0.7	1.3	0.0	0.6	
도소매업	·생산	0.7	0.5	0.4	4.9	-0.5	-2.5	0.6	-1.0		
	·재고	3.5	4.5	3.5	10.0	3.5	4.5	4.0	-		
소비	소매판매	전월(기)비	-	1.2	0.4	0.7	0.4	-2.2	-0.1	-	
		동월(기)비	2.3	2.6	2.5	5.5	2.0	-3.1	1.8	-0.7	
	-내구재	5.3	6.6	7.5	10.3	9.4	3.1	-1.7	0.7		
투자	설비	설비투자	전월(기)비	-	-6.8	0.8	-7.2	6.3	-8.7	6.5	-
			동월(기)비	-2.0	-8.2	-6.9	27.3	-6.3	-15.6	-18.2	16.9
		국내기계수주	-13.4	-10.4	-21.4	25.1	-17.0	-6.0	-32.7	-21.1	
	건설	건설기성	전월(기)비	-	1.0	1.5	6.1	2.1	-0.2	7.0	-
			동월(기)비	-5.8	-2.3	-5.6	7.3	-8.3	8.9	5.1	7.0
건설수주(경상)	-8.9	-13.6	-33.1	99.1	-43.0	-52.7	-46.4	-49.4			

자료: 통계청

광공업 생산, 전월대비 0.8% 감소

2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에서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1.2%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설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광공업에서 감소하여 1.9%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8%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9.3%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의복 및 모피(30.3%), 의약품(6.3%)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4.0%), 금속가공(-6.5%) 등이 줄어 전월대비 1.2%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화학제품(0.3%), 의료정밀광학(1.0%)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16.5%), 기계장비(-20.7%) 등에서 줄어 9.8%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대비 2.6% 감소,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7.8%로 전월에 비해 0.9%pt 하락했다.

소매판매, 전월대비 0.1% 감소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3.2%), 의복 등 준내구재(1.9%)는 증가하였으나, 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2.7%)가 줄어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1.7%)는 감소하였으나, 식료품 등 비내구재(3.4%),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2.6%)가 늘어 1.8% 증가했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슈퍼마켓(19.8%), 편의점(11.5%), 대형마트(8.2%) 등은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4.2%), 무점포소매(-2.7%)는 감소했다.

설비투자, 전월대비 6.5% 증가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6.5%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일반 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투자가 감소하여 18.2% 감소했다. 국내 기계수주는 공공 운수업,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2.7%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공사 호조로 전월대비 7.0% 증가하였으나, 건설수주는 발전, 기계설치 등에서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46.4% 감소했다.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vs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통계청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소폭 하락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 광공업 생산지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건설기성액,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1pt 상승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소비자기대지수 등은 증가하였으나,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구인구직비율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1pt 하락했다.

경기의 하방위험,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절적 특성이 존재

2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부진은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을 나타낸다. 제조업 가동률 역시 77.8%로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2009년 2월 79.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월 수치에는 설 연휴라는 계절적 특성이 존재하고 있어, 경기침체 가속화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며 3월 수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2월 경기동행지수가 반등했으며,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은 지난 해 12월 113.7%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지속(1월: 116%, 2월: 114.1%)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정부의 경기부양책 가시화될 듯

한편 정부의 2013년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은 경기 하방위험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2/4분기 중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실시될 예정이다. 4월 발표될 추경 규모는 10조 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추경은 경기 저점에서 편성 및 집행됐다. 추경은 4월 8일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사업선정 및 집행시차를 감안하면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집행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추경편성 및 집행은 하반기 재정지출 여력을 보완하는 것이다.

2/4분기 성장률, 완만한 개선추세 전망

이를 감안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의 반등은 2/4분기부터 소폭이나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당시를 되돌아 보면, 2008년 4/4분기 전분기 성장률이 -4.6%를 기록한 후, 2009년 1/4분기에 재정지출이 81조 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올해 2/4분기의 재정 조기집행 규모는 87조 원 수준이며 이를 초과할 전망이다. 연간으로 보면 2009년 당시 재정지출은 251.5조 원 수준이었으며, 올해는 추경 10조 원을 감안하면, 3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국내 경제부문에서는 설비투자와 건설수주 부문이 특히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해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추가적인 부진 폭을 제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